

성화 VII :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성화의 일곱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 :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는 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보다도 넓고 넓어 건너지 못할 영원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CHRISTIAN 으로 살아 가는 것이지 CHRIST 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마귀의 울무에 빠져 황당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여러 이단의 괴수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나, 신앙촌의 박대선, 70 년대의 여호와 세일 교단의 이뢰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잘몰라,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여호와 세일 교단 이뢰자씨는 계룡산 출신인데 부활한다고 하며 연못에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의 시체를 건져 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자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문선명이는 예수가 죽어서 실패해 재림주로 자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가 재림주가 되기 위해선 죽음을 부활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거짓말을 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하나 뿐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죽어야 할 아담의 후예임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른 이단의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CHRISTIAN 으로 살아 가는 것이지 CHRIST 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되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어디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보여줍니다.

2.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원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원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존재의 실존 상황에서 우리와 현저히 다른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첫사람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물려 준 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육(Flesh, sarx),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육(Flesh, sarx), 타락한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적 부터 이 타락한 성품, 육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인격인 옛사람(Old Person)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시해 주는 아주 고귀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고귀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실존의 상황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은 멀고 먼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존재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길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 보십시오.

1. 원죄에서 용서

우리는 원조를 타고 났지만, 원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새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원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빛을 다 갚으셨습니다.

죄의 빛이 다 청산되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안에서 원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말은 옛사람으로 살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사람으로 살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 :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중요한 점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로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 들지만 예수님 의 피로 원죄가 다 용서된 우리를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2. 옛사람의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락한 인격인 옛사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자, 세상의 도인들이 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생명으로 살아 가는 부활의 신앙의 극치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이 제거된 다음에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의 인격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3. 육에서의 해방

육은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 준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있는 곳엔 언제나 육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 준 육의 본질은, 하나님과 독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본질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육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육을 제거하셨습니까?

어떻게 독립성과 무의탁성을 제거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을단번에 제거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육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아닌, 육의 종살이를 하는 옛사람이 죽게 함으로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육에서 해방되는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육의 제거가 아니요, 육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6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구절에서 죄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인 육으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해석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육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육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이 각 사람의 안에서 인격화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육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여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영에 있는 사람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KJV)

4. 성령 충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속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완전하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흠에서 온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충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래 본래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형체로 강림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희도 나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나를 본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한 세상을 멋있게 살아 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일을 하리니 ---

요한복음 14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 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 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5.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극복한 존재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너무 많이 다른 시간에 공부를 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은 헛된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축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